



일본, 연금제도 개혁의 최근 동향

이소양 연구원

요약

최근 일본은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및 저소득층에 대한 급부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가입 대상 확대 및 연금 수령 가능 연령 인상을 추진함. 이와 동시에 퇴직연금 가입 요건 완화, 연금 수령 가능 연령 조정, 기여금 한도 확대를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 한편, 일본은 2024년에 한국 ISA와 유사한 NISA의 적립자산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함

- 일본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연금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사회·경제 환경변화로 인한 제도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음(〈그림 1〉 참조)
 - 일본의 공적연금은 누구를 적용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기초연금, 1층)¹⁾과 후생연금(2층)으로 분류됨
 - 기초연금은 20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정액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후생연금은 민간 근로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연금(3층)이 있으며 개인의 추가적인 저축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4층)이 있음
 -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퇴직연금은 1990년대 초에 도입된 국민연금기금,²⁾ 2000년대 초에 도입된 확정급부기업연금(이하, 'DB 퇴직연금')과 확정각출연금(이하, 'DC 퇴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에 공적연금의 급부 수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에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을 후생연금으로 통합한 바 있음
- 최근 일본은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및 저소득층에 대한 급부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 수령 가능 연령 인상을 추진함³⁾
 - 2022년 10월에 후생연금의 적용 대상 기업 규모를 기존 5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2024년 10월에 50명 이상까지 추가 조정할 예정이며, 강제 적용 대상인 5명 이상의 개인사업소에 변호사, 세무사, 사회보험노동사를 포함함
 - 2022년 4월에 고령자 취업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기존 60~70세에서 60~75세로 조정하며 2023년 4월에 연기 연금⁴⁾ 지급 연령을 최대 70세에서 75세로 조정할 예정임

1) 일본에서는 자영업자 및 주부 등이 가입할 경우 기초연금, 민간 근로자 등 피용자가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구분하여 호칭하고 있음

2)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초연금)에만 가입하는 자영업자 등에게 후생연금 가입자와의 노후소득 격차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됨

3) 厚生労働省(2020), “年金制度の機能強化のための国民年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4) 연기 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한 가입자가 기존 연금(정년퇴직 시의 수령 연금액) 외에 별도로 수령하는 연금액(연기 연도에 일정 비율

- 현행 일본 공적연금의 연금 수령 연령은 65세이며, 65세 이후 수령자는 기존 연금(65세의 수령 연금액)에다 연기 연금(연기 연도×8.4%)을 추가 수령할 수 있음

○ 이와 동시에 공적연금의 급부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요건 완화, 연금 수령 가능 연령 조정, 기여금 한도 확대를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

- 2022년 4월에 DC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해 기업형 DC 퇴직연금 가입 연령을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개인형 DC 퇴직연금(일명 iDeCo) 가입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인상함
-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업형 DC 퇴직연금(일명 간이 DC 퇴직연금) 및 iDeCo의 적용 대상 중소기업 규모를 기존 1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조정함
 - 일본에서 기업형 DC 퇴직연금 도입 경향이 낮은 중소기업은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 DC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형 DC 퇴직연금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iDeCo 가입 근로자를 위해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iDeCo+를 제공할 수 있음
- 2022년 4월에 공적연금의 연금 수령 가능 연령 조정으로 DC 퇴직연금(기업형 및 개인형 포함)의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기존 60~70세에서 60~75세로 조정함
 - 2020년 10월에 기업이 고령자 고용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DB 퇴직연금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기존 60~65세에서 60~70세로 설정할 수 있게 조정하였음
- 2022년 10월에 기업형 DC 퇴직연금 가입자의 iDeCo 가입에 요구된 제한 요건을 폐지하며 2024년 12월에 DB 퇴직연금 가입자의 iDeCo 기여금 한도를 매월 1.2만 엔에서 매월 2만 엔으로 조정할 예정임
 - 2022년 10월 이전에는 기업형 DC 퇴직연금 가입자 중 iDeCo 가입을 허용하고 DC 퇴직연금의 기여금 한도를 매월 3.5만 엔으로 설정하는 기업의 근로자만이 iDeCo(기여금 한도 매월 2만 엔)에 가입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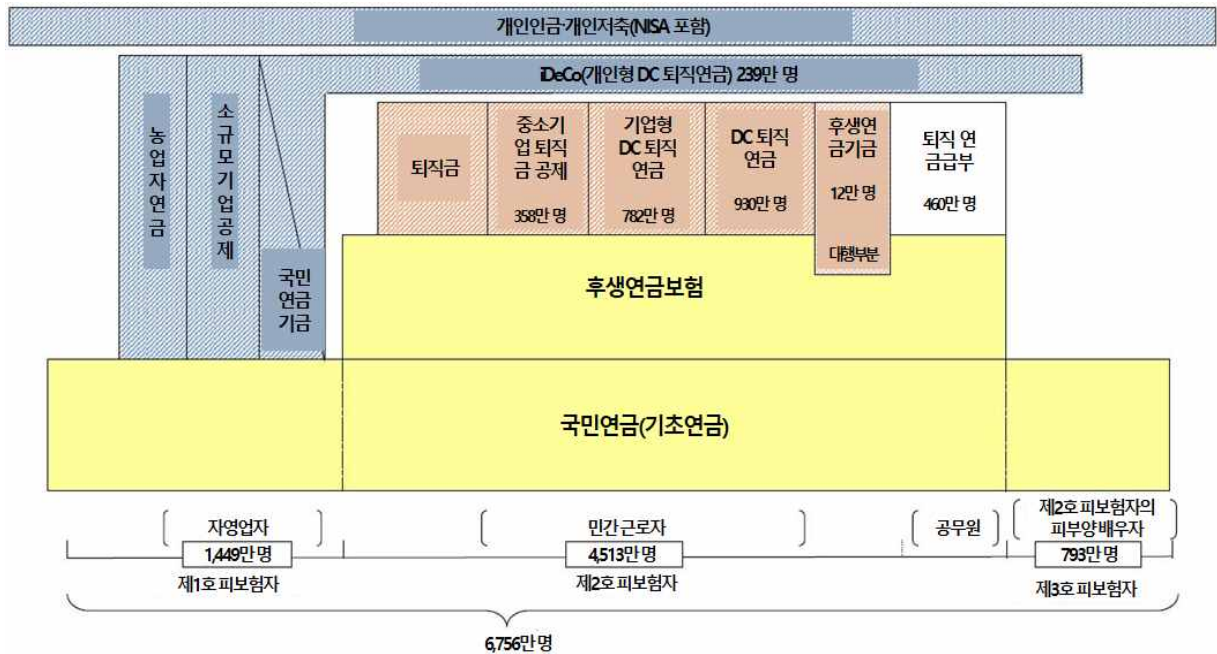
○ 한편, 2024년 일본은 한국 ISA와 유사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NISA)의 적립자산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임⁵⁾

- 2014년 일본은 영국 ISA를 참고하여 투자수익에 대해 5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NISA를 도입하였으며, NISA의 총 비과세 투자한도는 최대 800만 엔이고 비과세 보유기간이 최대 20년임
 - 일본 NISA는 투자한도와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 NISA(600만 엔, 5년) 및 적립 NISA(800만 엔, 20년)로 구분되며, 계좌 간의 전환이 허용되지만 동시 가입이 불가능함
- 2024년 1월에 시행될 신 NISA의 총 비과세 투자한도는 기존의 최대 800만 엔에서 1,800만 엔으로 인상되고, 비과세 보유기간은 일반 NISA 5년, 적립 NISA 20년에서 모두 종신으로 조정될 예정임
 - 일반 NISA 및 적립 NISA의 동시 가입도 허용될 예정임
- 신 NISA의 총 비과세 투자한도 확대 및 종신 보유 허용으로 NISA 가입자는 투자자산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함

5) 마넡스証券(2022), “2024年から始まる新NISA制度・NISA制度改正についてFPが解説!”

〈그림 1〉 일본의 공·사연금 역할 분담 체계



주: 1) 퇴직연금 중 퇴직금, 중소기업퇴직금 공제 등 다양한 직역연금이 존재하지만 본 고에서 DB, DC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봄
2) 각 연금제도의 가입자 수는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임

자료: 厚生労働省(2022), “私的年金制度(企業年金・個人年金)の現状等”를 참조하여 작성함